

(제1편)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성

최운국(중남미 정치·경제·문화 전문가)¹⁾

1.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 의미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농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부문이며, 사회적으로는 인구 구성과 농촌사회의 주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먼 나라 아르헨티나는 한반도의 12배를 상회하는 세계 8위의 광활한 면적을 지닌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구대륙과 신대륙 즉 두 대륙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많은 아메리카 지역이 교류의 중심에 섰지만, 아르헨티나는 19세기 중반까지 변방에 위치한 버려진 비옥한 땅이었다.

스페인의 식민통치는 원주민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 쿠바, 광역 페루를 중심으로 하는 광물 채굴경제에 국한되면서, 이들 지역은 ‘수탈된 대지’의 대상이 되었다. 굳이 안데스 산맥 너머의 땅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스페인의 식민 당시에는 대서양 연안과 카리브 해를 통해 유럽과 연계하는 교역 루트가 지배적이었다.

18세기 중순 발생한 영국의 산업혁명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여파가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그러면서 유럽의 필요는 오로지 유럽의 공업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물자원 외에도 인구 급증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요구되었다. 마침 유럽은 산업혁명의 결실로 운송 및 통신 수단 등이 크게 발달하고 의학수준의 발달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산물 수요 충족과 인구 송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오랜 세월 변방에 위치하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수도로 1776년에 ‘리오 데 라 플라타(Río de La Plata) 부왕령’²⁾이 세워지고, 이어서 스

1) cochoi@hanmail.net

2) 스페인 식민통치 시기의 마지막 부왕령으로 포르투갈의 접근에 대비해 1776년에 라 빨라따 강 유역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페루 부왕령 하의 일부 지역 등을 통합해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페인에 브르봉 왕정이 새로 들어섰다. 보르봉 왕정은 기존의 특정 항구만의 독점 교역이 아닌 개방적인 개혁조치를 시행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새롭게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를 최단 항로로 연결하는 거점 지역으로 부상되었다.³⁾ 즉, 과거 페루 지역의 쿠스코-리마와 파나마의 포르토베요를 통하는 멀고 험한 육로와 태평양을 따라 파나마까지 운송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루트를 지양하였다. 이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항에서 직접 스페인 및 유럽으로의 보다 빠른 교역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 라 플라타 강 유역은 약 2,300만 두에 달하는 소, 말, 양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소금에 절인 쇠고기와 피혁 및 수지 등이 주력 생산 및 수출상품이었다.⁴⁾

<그림 1> 스페인의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통치하기 위한 부왕령: 리오데라플라타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공업화 과정에서 해외로 부터 농산물의 수입수요 필요성을 인식했다. 미국, 캐나다 및 호주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온화한 기후와 광대한 땅을 보유하여 농업에 적합한 아르헨티나가 이민 송출대상지로서 표적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810년 5월 25일 독립의 초석인 시의회를 개최하였지만, 국가의 기틀인 헌법은 1853년에 제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헌법 25조에 유럽 이민자를 선호 유입함으로써 나라를 건설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1880년 로카(Julio Argentino Roca)장군의 ‘사막의 정벌(Conquista del Desierto)’로 국토통일이 일단락 될 때까지는 유럽이민의 유입은 미비하였다.

의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우루과이,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 등이 포함된다.

3) 스페인 식민 초기 교역은 스페인의 「세비아」와 「까디스」항, 중남미의 「아바나」, 「베라크루스」, 파나마의 「포르토베요」, 콜롬비아의 「까르타헤나」 항간에 독점 교역을 허용하였다. 1787년 합스부르크 왕조에 이은 부르봉왕조는 개혁을 시도하여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24개 항구와 스페인 본국의 13개 항구와의 교역을 허용하였다.

4) Eugenio Chang-Rodríguez, 2000, *Latinoamérica: su civilización y su cultura*, 3ed, pp. 131-132.

아르헨티나는 1870년대부터 1930년 기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과 농축산물의 유럽 운송을 위한 영국 및 프랑스 자본의 철도 건설에 힘입어 곡물 및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출 지향 경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국토의 안보 구축에 따른 광활한 대지에 노동력이 요구되었고, 유럽은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에 기인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유럽 이민자들은 철도망이 확장되면서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내륙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을 꼭지점으로 연결하게 된 철도망은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농산물의 운송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팜파스⁵⁾’ 곡창지대는 영국과 이탈리아 면적을 합친 약 60만 km²의 광활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축산업의 요람이 되면서 철도망이 발달하였다.

팜파스에 250만 명의 유럽 노동력 유입(1870~1920)되고 철도 및 유럽의 기술이 투입되면서, 생산되는 대두, 밀, 옥수수, 쇠고기 등은 철도로 빠르게 수출항으로 운송되어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3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3%를 차지하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⁶⁾ 결국 당시에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농업의 힘이 컸다.

<그림 2> 1895년과 1914년 당시 건설된 철도망



주: 파란색은 1895년 건설된 철도망

자료: <http://estkm29.blogspot.com/2014/10/red-ferroviaria-argentina-1870-1946.html>

5) 팜파스는 아르헨티나의 라 팜파주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팜파스는 라팜파주를 포함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타페주, 엔트레리오스주, 코르도바 주를 포함하는 광활한 대지이다.

6) 최윤국. 1988. *La inser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en la economía internacional*, UCM, 1988.

유럽에서 발발한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아르헨티나는 식량과 육류 수출로 인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는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집중됨에 따라 사회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농업 중심의 수출경제는 유럽 수요의 감소와 세계경제의 폐쇄주의 지향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고, 수입대체산업화라는 국가주도의 내수 중심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국가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정정이 불안정해지자, 1930년 우리부루 장군의 쿠데타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는 1982년까지 지속적으로 군사정권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2차 세계대전은 또 다시 아르헨티나에게 농산물 수출로 인한 큰 부를 안겨 주었다.

이러한 부는 1946년 세력을 확장해 오던 노동자집단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페론 정권 하에서 부의 분배, 산업노동자 복지 확대 등으로 페론이즘⁷⁾이라는 포퓰리즘을 창조해 내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정부 시기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산업화 과정에서는 농민보다 산업근로자의 지위가 격상되었다. 산업근로자는 조합의 힘으로 세력이 더해지고, 농민의 근로 마인드는 감소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층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점차 농업은 GDP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의 식량 공급차원에서 국가 관리를 받게 되었다.⁸⁾ 한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의 농축산물 수출 비중도 1928년 3.2%에서 1938년에는 1.9%, 1958년과 1981년에는 각각 1.0%와 0.5%로 하락하였다.⁹⁾ 오랜 기간 경제의 근원이었던 농업이 산업의 보완재 역할을 하다가 1976년 군사정권 하에서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지만, 잦은 쿠데타와 이에 따른 정정불안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농업은 오랜 기간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군사정부의 마지막 수단이었던 1982년 말비나스 전쟁(포클랜드 전쟁)¹⁰⁾의 패배로 아르헨티나는 민선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라울 알폰신 민선정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전을 내놓지 못했으며, 만연된 복지 포퓰리즘, 조합주의에 익숙한 국민,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 정권을 또 다시 페론주의자¹¹⁾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빈번한 쿠데타, 정치적 표로 인식하는 포퓰리즘의 만연, 하이퍼인플레이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농업은 아무런 정책 보조금 없이 자력

7) 페론이즘은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1946~76)이었던 후안 페론(Juan Perón)과 부인 에바 페론(Eva Perón)의 정치사상으로 노동자 계층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중적 민중주의, 통신패괴 및 철도 및 곡물 유통 등의 국유화, 대중적 복지, 반미 독립외교, 관료적 독재주의의 특징을 지닌다.

8) 이러한 결과 농업의 GDP 점유는 1930년 25%에서 1938년 15.7%, 1948년 12.7%, 1965년 11.6%, 1975년 5.8%로 계속 감소하였다. 밀 수출의 경우 1934~38년 기간 세계 밀 수출의 19%를 점유하였으나, 1976~81년에는 4.6%로 감소하였다. 옥수수 경우도 동기간에 6.4%에서 5.8%로 하락했다.

9) 최윤국, op.cit.

10) 말비나스 섬은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에 가까우나, 이주의 역사로는 영국, 프랑스 및 아르헨티나가 맞물려 있으며 영토분쟁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국내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영국령 포클랜드를 공격하나 두 달 만에 항복하면서 기나 긴 군사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1) Infobae에 따르면 2017년 경우 국민의 약 62%가 긍정적 페론주의자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현재 대통령도 페론주의자일 정도로 아르헨티나에서 뿌리깊은 정치 사상이 되고 있다.

으로 생존해 나올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페론당의 메넴 정부는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의 수출세 인하 및 비료가격 인하 등의 농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농업부문은 희생이 되어 수출 증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¹²⁾ 아르헨티나는 21세기 들어 경제·사회 발전의 근간은 농업부문에 있음을 재인식하고 있다.

2015년 시장주의자인 마크리가 정권을 잡기도 하였으나, 2019년 다시 페론주의자인 페르난데스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마크리 정부에서 2018년 시작된 경제 위기 (macrisis)는 오랜 숙제이기도 한 폐소화의 하락, 재정 적자, 빈곤 및 실업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9년 12월 집권한 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는 사회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¹³⁾ 정치 색깔에 따라 아르헨티나 농업 정책의 최대 특징인 수출세도 인하와 폐지 그리고 부활을 거듭하고 있다.

2. 농업과 지리적 환경

아르헨티나는 행정적으로 크게 6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지역이 농업 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 팜파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와 코르도바 주의 대부분과 엔트레리오스 주, 산타페 주, 라팜파 주
- 쿠요: 멘도사 주, 산후안 주, 산루이스 주
- 북동부: 코리엔테스 주, 차코 주, 포르모사 주, 미시오네스 주
- 북서부: 카타마르카 주, 후후이 주, 라리오하 주, 살타 주,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주, 투쿠만 주
- 파타고니아: 추부트 주, 네우켄 주, 리오네그로 주, 산타크루스 주, 티에라델푸에고 제도

지역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의 핵심 지역은 팜파스이지만, 그 외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제작물이 전략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쿠요 지역은 포도와 포도주 산업, 파타고니아 지역은 양 사육과 사과 및 배, 북서지역은 설탕, 레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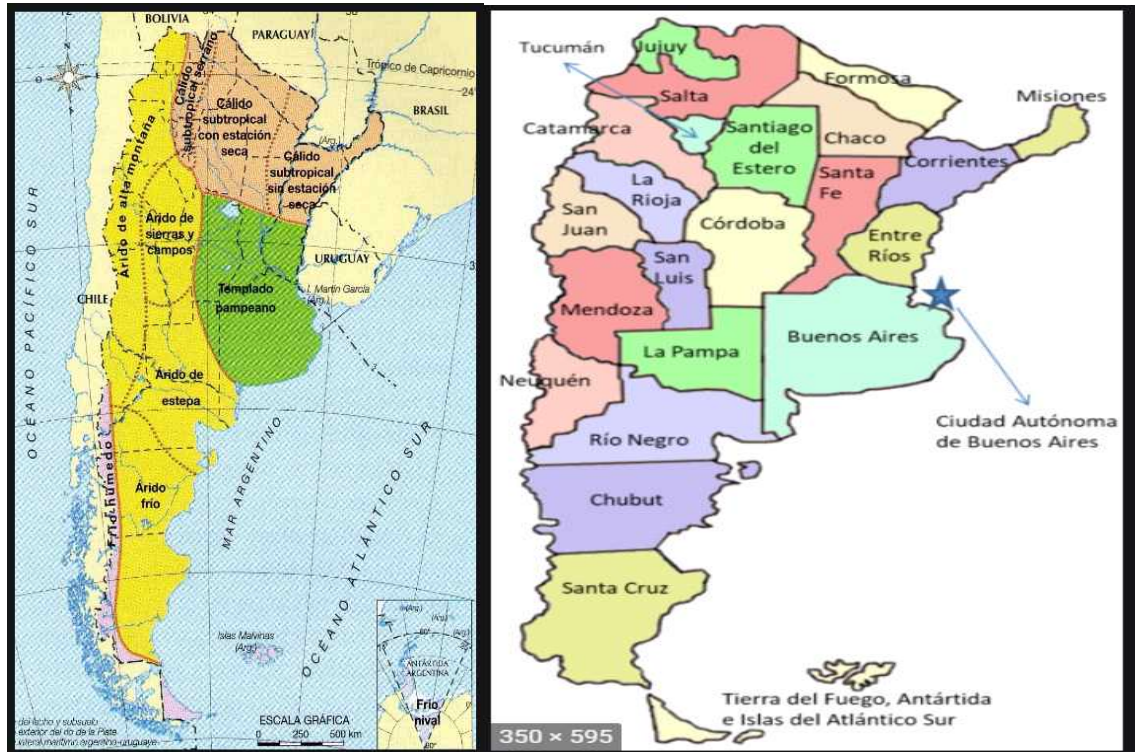
12) Rinaldo Antonio Colom. 2008. "Sobre Política Agraria Argentina en el Período 1933-2007," *Revista de Economía y Estadística*, Cuarta Época. Vol. 46, No. 1. pp. 22-23.

13) Giani, Juan José (ed.). *Peronismo: Sus desafíos 2020. Macrisis y pandemia*. Paso de los Libres.

및 담배, 미시오네스와 코리엔테스 북서 지역은 마테, 차 및 목재, 차코 지역은 목화, 코리엔테스 주는 쌀 등이다.

기후대로 보면 산악 건조기후대에서는 올리브, 아열대 기후대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패션프루트, 아보카도, 파파야 및 커피 등 열대작물이 특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경제 특용 작물들은 국내 소비가 주다.

<그림 3> 아르헨티나의 행정구역과 기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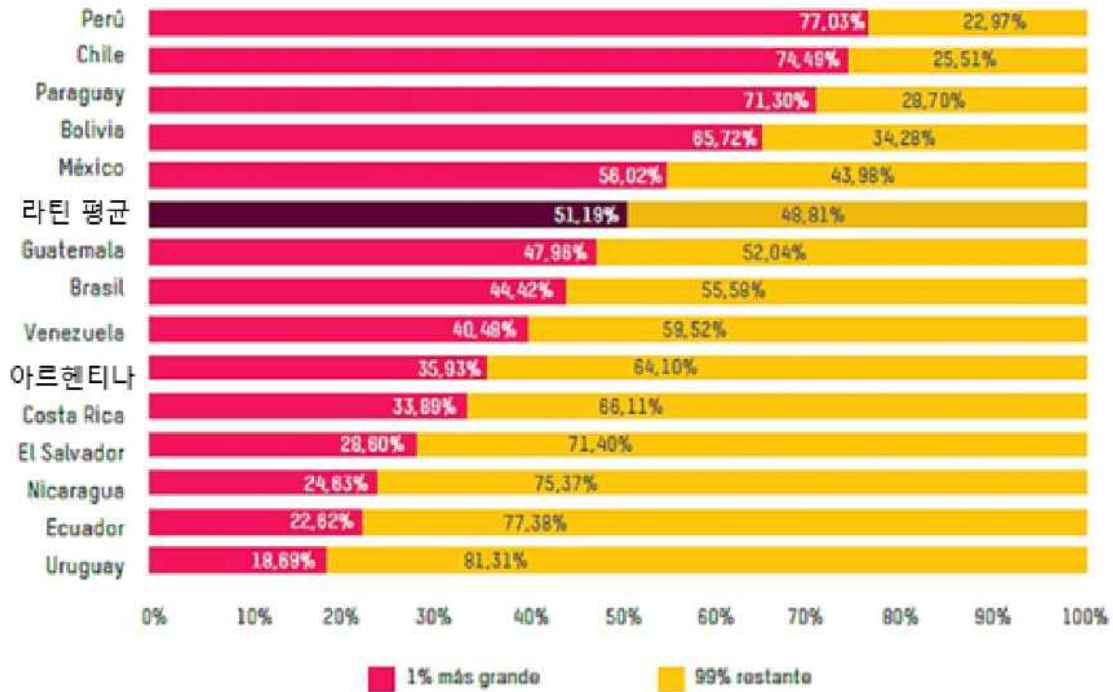
주: 기후 지대에서 초록색은 온대 팜파스, 노란색은 건조기후대, 붉은 색은 건조한 아열대권
 자료: <https://edu.glogster.com/glog/clima-rido-de-alta-montana/1gljg80a7mn?glogpedia-source;>
<https://www.mochilerosviajeros.com/mapa-argentina/mapa-argentina/>

3. 토지 집중도의 역사와 특성

아르헨티나 농업부문의 가장 큰 과제는 토지 집중도의 심화이다. 아르헨티나는 대토지 농장주 0.94%가 아르헨티나 전체 생산면적의 35.93%를 차지하고 있다. 99.06%에 달하는 나머지 중소농이 64.10%를 점유하고 있다.¹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는 1%의 대농장이 생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수에 의한 토지의 높은 집중도는 사회 계층 간 불균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14) <https://www.ambito.com/politica/se-profundiza-la-concentracion-la-tierra-la-argentina- apenas-1-acapara-33-del-territorio-n3969517>

<그림 4> 1%의 대농장의 나머지 99%에 대한 토지 점유 비중



자료: <https://www.ambito.com/politica/se-profundiza-la-concentracion-la-tierra>

2018년 9월 15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수행된 2018년(CNA 2018)의 최근 국가농업센서스¹⁵⁾에 따르면, 1.08%의 농장 소유주(2,473개 농장)가 토지의 약 40%(5,700만 ha)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틴아메리카의 상위 1%의 소유하는 평균 면적은 2천 ha(축구장 4,000배 크기)이며, 아르헨티나는 평균치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상위 1%의 농장 평균 규모는 22,000ha이다.

농촌 지역의 폐해 중 하나는 버려지는 농가의 증가이다.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2,500개 농촌 마을 중 이미 400여개는 경작민이 없으며, 또 다른 400여개는 반쯤 버려져 있으며, 90개 농촌마을은 2001년에 이미 사라졌다.¹⁶⁾ 30년 사이 농장의 41%가 사라지면서 소수에 의한 토지 집중은 심화되었다.

소농(chacras로 가장 작은 규모의 농장으로 100ha 이하를 지칭한다)의 55%는 토지의 2%만을 차지할 뿐이다. 소농은 전체 농장 수(125,023)의 54.6%가 해당되지만, 토지면적의 2.25%(350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도리어 아직도 적은 수(1.08%)가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다수(54.6%)는 너무나 작은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¹⁷⁾

아르헨티나에서 토지 집중 문제는 과거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보아야 한다. 스

15) 국가농업센서스 2018, 2019.

16) El Pueblo en Línea, 14/06/2018.

17) <https://www.pagina12.com.ar/242871-el-campo-cada-vez-esta-mas-concentrado>

페인 식민통치 시대에는 영토 소유에 대한 법적인 인식이 미흡했다. 1816~1822년 토지가 독립에 기여한 자들에게 배분이 되었다. 당시 목장주들은 점차 그들의 토지를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원주민들의 터전을 탐내기 시작했다.

원주민 터전을 향한 ‘사막의 정벌’은 토지의 집중도를 심화시켰으며, 봉건제에 가까운 제도가 확립되었다. 1825~1837년 운영된 Enfiteusis(영대차지권) 제도는 100만 ha 이상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조세 수입이 부과되었으며, 투기 목적의 토지 축적이 이루어졌다. 1832년에는 로사스(Rosas)정권에서 Enfiteusis 제도를 폐지하고 공유지의 상당 부분을 판매 가능하게 하여 소수에 의한 토지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었다.¹⁸⁾

1858년 로사스의 실각 이후 국가는 20만 ha를 회수하였으나, 이 수치의 두 배를 넘는 면적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었다. 1870년대 말까지 원주민 터전에 대한 ‘사막의 정벌’이 지속되면서 토지의 집중화와 대농장의 팽창이 계속되었다. 로카에 의한 1878~1884년의 ‘사막의 정벌’은 원주민의 터전인 팜파스와 파타고니아에 군사작전을 전개해서 새로운 영토를 자신의 작전에 지원을 해 주었던 세력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1875년 영국에 곡물이 처음으로 선적되면서 곡물 재배와 사일로 그리고 철도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국의 투자가 급증했다. 1876년에는 냉동 육류의 해상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축산업 부문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1880년 이후 사르미엔토(Sarmiento) 정부는 합리적 가격으로 토지의 분배를 시도하였으나, 준비되지 않은 원주민과 gaucho¹⁹⁾들은 농장의 일꾼 및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였다. 1899~1900년 팜파스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경우 소유주가 39%, 소작농 51.5%; 산타페는 39.3%와 41.9%; 엔트레리오스는 61.4%와 25.7%; 코르도바는 39.3%와 36.4%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표 1> 팜파스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 1899~1900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엔트레리오스	코르도바
소유주 %	39.08	39.31	61.44	39.25
소작농 %	51.52	41.89	25.70	36.35

자료: <https://www.slideshare.net/JavierThellaecheOrti/tenencia-de-tierra-en-argentina>

유럽이민자 유입과 국토 팽창으로 인해 1890년에 곡물 재배면적이 2,384,000ha에서 1899년에는 3,307,749ha로 증가하였으며, 당시 주요 경작물은 대두가 아닌 밀과 옥수수였다. 이 당시의 영농은 원시적인 기술을 사용한 조방농경 체제로 생산성이

18) 1830년에 980명의 소유주가 14,893,200ha를 점유하였으나 1840년에는 450명의 농장주가 14,850,000ha를 점유하였다.

19) 아르헨티나의 gaucho(가우초)는 팜파스 등의 평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일명 카우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목장에서 목동으로 일하거나 계절 노동자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낮았다. 19세기 말 아르헨티나는 곡물에 앞서 소 사육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팜파스는 축산업과 더불어 유럽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곡물 재배가 유럽이민자의 유입에 힘입어 크게 발달하였다. 1914년에 이미 팜파스의 주요 5개주에는 토지의 60% 이상이, 아르헨티나 전체 토지의 80% 이상이 1,000ha가 넘는 단위로 소수에 집중되었다. 5,000ha가 넘는 대농장 규모도 전체 토지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1914년에는 이미 팜파스 지역에 새로운 농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였다. 이제는 새로운 땅의 유입이 아닌 팜파스에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인구는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토지의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게 되어 투기가 만연하였다. 유럽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자들도 대거 도래하면서 1869년에 세계 인구의 0.13%에서 1930년에는 0.55%까지 증가하였다. 농지구조 관점에서 아르헨티나의 토지 분배는 결단코 평등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오래된 토지 소유에 대한 불균등은 저항 운동의 심화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색과 구별없이 토지를 소수내지 외국인 소유로 하면서 채굴주의 -추출 기반 생산모델로 대규모로 자원을 개발하는 행위-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한 데에 기인한다.

라틴아메리카의 토지 지니 계수²⁰⁾는 남미가 0.85, 중미는 0.75를 보이고 있어 토지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 0.57, 아프리카 0.56, 아시아 0.55와 비교해 보더라도 불균등 상태를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등록된 농업생산단위체(UPA)가 246,947개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소유 면적은 2,320만 ha에 달한다. UPA의 83%는 경지 면적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소농의 정의는 약 100ha를 의미한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비단 토지의 사용뿐만 아니라, 누가 토지를 통제하고 있는냐라는 문제이다. 대농장주와 영농관리업체 간의 계약, 다국적 기업에 의한 토지 통제, 투자를 유치하려는 농기업의 정부당국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등은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복합적인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토지의 주인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토지 양도 과정에서 불투명성, 페이퍼 컴퍼니의 활동, 제 3자를 통한 명의 및 소유권 공공등록 행정 과정에 있어서의 관료주의 장벽 등은 소유주의 정체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회사나 현지 회사와의 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점차 트랜스라틴기업, 국제금융운영자 및 다국적농기업들이 토지 매입에 나서 원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대통령(2015.12~2019.12)은 취임 후 외국인에게 농지 매도의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26.737 법령을 통해 농지법(Ley de Tierras)을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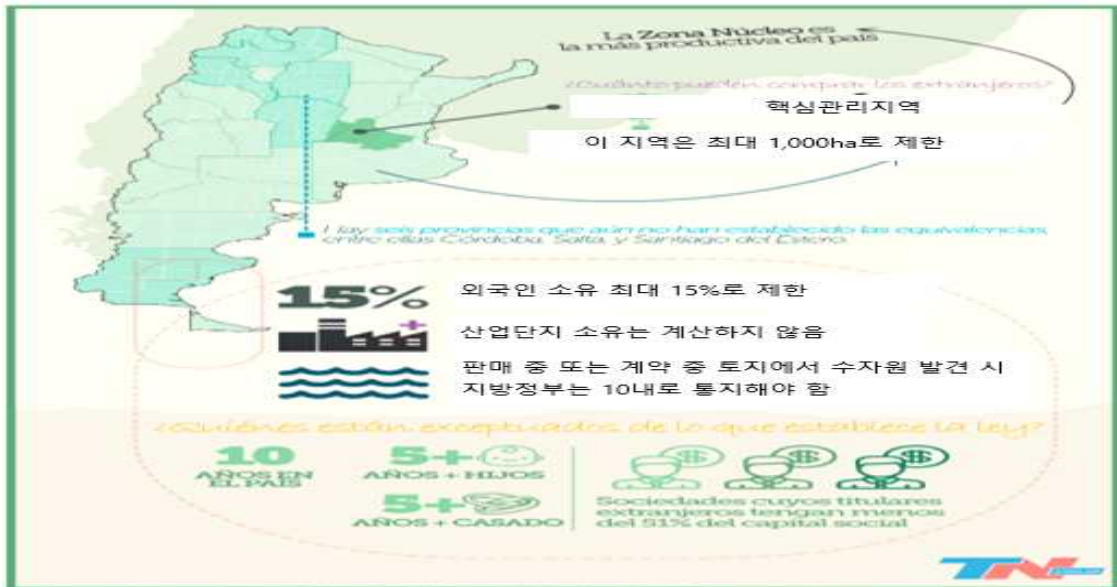
2011년 제정된 법령²¹⁾에 의하면, 외국인의 농지 매입에는 국내 합산 15%라는 제

20) 토지 지니 계수는 0~1로 1에 가까울수록 집중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21)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2007.12~2015.12)은 201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소유법 유지를 공포했다. 법령으로는 15%였지만 당시 전체 농지의 5.93%만이 외국인 소

한을 두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코르도바 남부 및 산타페 같은 핵심관리지역(zona núcleo)의 경우 최대 1,000ha로 제한하였다. 모든 농지는 국립농지등록소(RNTR)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농지의 5.93%는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이는 15,881,069ha를 의미하며, 이 크기는 살타 주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그림 5>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권 제도: 2016년



자료: https://tn.com.ar/sociedad/ley-de-tierras-quien-puede-comprar-cuanto-y-donde_699512/

국적별로 보면, 미국 소유주가 전체 농지의 1.13%(3,042,680ha)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및 우루과이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별 농지 소유 점유율을 보면 15%를 밀돌고 있다. 미시오네스, 코리엔테스, 살타, 라리오하 및 카타마르카 지방이 외국인의 농지 소유가 많은 편인데, 10.9~13.9%에 이르고 있다. 파타고니아 지방은 2~9.6%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한적한 농촌의 경우 토지법을 상회하는 점유율(30%)을 허가해 주고 있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의 토지 문제에는 원주민 박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대두 경작지의 84%가 원주민 영토에 속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권 문제는 고용을 제한하고, 이농현상으로 인한 도시의 빈민계층을 확대하고, 사회통합, 민주주의 질, 환경보전, 국내외 식량안보를 저해할 수 있기에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농촌은 점차 사라져 가게 되었으며, 약 40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장의 대규모화와 이농현상에 기인한

유로 되어 있는 것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상당한 공지를 가졌다.

것으로 보인다. 작물 생산도 이익이 크게 나는 대두를 비롯한 밀과 옥수수 등으로 집중되었는데, 이는 초지 및 지역경제특용작물 생산을 희생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생산과 농장은 더 큰 면적을 차지하였지만, 소규모 농장들은 위축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장 평균 면적의 증가에서도 두드러진다. 1988년 농장의 평균 면적은 421ha에서 2018년에는 826ha로 증가하였다. 작물 중에서는 농지의 대두화(sojización)가 두드러진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심장인 팜파스는 토지 집중도가 그렇게 두드러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농지는 소유주가 생산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며, 기타 지역 경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포도, 과일, 사탕수수 및 마테 같은 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토지의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소농은 노동력 투입에 비례하기 때문에 노동력 수급 문제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자금력이 있는 지닌 대농장들은 대규모로 경작하면서 고효율 저비용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멘도사와 투쿠만 지방을 들 수 있다. 멘도사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농장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1988~2018년 30년 사이에 33,249개에서 19,622개로 41%에 달하는 농장이 사라졌다. 과수 면적 역시 10%가 감소하였으며, 경작면적은 21.4만에서 19.3만 ha로 감소되었다. 현재 3,136개의 농장(16%)이 50ha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투쿠만은 농장수가 75% 감소하여 1988년 15,988에서 2018년 4,028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곡물, 유지종자 및 사탕수수와 같은 공업용 작물의 면적은 4천 ha가 증가해서 44.9만에서 45.3만 ha가 되었다. 현재 1,406개의 농장(35%)은 각각 50ha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팜파스와 비팜파스 간에 상이한 현실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두는 점차 현대화된 기술패키지를 활용하고 있다. 만일 토지 소유주 내지 생산자가 생산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통해 농목수출업체, 투입재 공급업체 및 전문영농회사²²⁾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곡물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1988~2018년 대두, 옥수수 및 밀의 식부면적 비중은 23%에서 69%로 증가하였으나, 점점 생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농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많은 농촌 인력들은 대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거나 젊은 층들은 이농을 하게 되면서 농촌사회는 고령화라는 문제도 안게 되었다.

1988년 140만 명이 농촌에 정주하고 있었지만 2018년에는 73.3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83,234명에 달했다. 특히 50ha 미만의 소농은 자본, 기술 및 기계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족농 형태로 고전적인 경작을 하고 있다.²³⁾

소농의 사라짐과 농촌 탈출은 애그리비즈니스(agronegocio) 모델 추구와 관련이

22)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체계가 잘 잡힌 농고와 농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농업기술자 또는 농업기사는 타이틀을 가진 우수한 농업전문인력 집단이 농업현장에서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활동하나 전문영농기업과 연계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영농을 전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윤국. 2008.3. 「아르헨티나 사료곡물자원 시장 동향 및 경쟁력 조사연구」. 한국아르헨티나협회.

23) <https://www.lacapital.com.ar/agroclave/la-concentracion-la-produccion-agropecuaria-se-profundiza-el-pais-n2551023.html>

있다. 애그리비즈니스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수출우선주의 모델로 식품 생산과 농민들을 농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여러 정부를 거쳐 오는 동안 지속되어 온 농목주도 성장모델의 결과는 다국적 중자기업에 의한 지배, 토지의 집중도로 나타나고 있다. 즉 더 큰 업체가 중소 농민을 밀어내는 농민 없는 성장 모델은 지양되어야 한다.

토지에의 접근 및 운용 면에서의 극심한 토지 불평등은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행위로 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재분배 등 공평한 방법과 수단에 의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²⁴⁾

4. 경제 속의 농업

아르헨티나의 농업부문은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GDP의 약 6% 수준인 3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수출 중 약 60%가 농산물 및 관련 제품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GDP 대비 농업 비중은 2000년 5.1%에서 2018년에는 6.1%로 다소 증가하였다.²⁵⁾ GDP 대비 농업 비중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한 해도 있다. 1965년의 12.9%, 1973년 11.95%, 2002년 10.82% 그리고 2003년의 11.04%이다. 총 수출 대비 농식품의 비중은 1995년에는 53%에서 2000년에는 45%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 64%를 달성하였다. 이는 OECD 평균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2> 아르헨티나 농업 현황(2018년)

구분	2018년	단위	2000년
총 인구	44.4	백만 명	37.0
농촌인구	3.6	백만 명	4.0
총 GDP	518.4	십억달러	438.0
1인당 GDP	11.6	천 달러	11.8(ppa기준)
농업 GDP	31.8	십억 달러	22.3
농업 GDP 비중	6.1	%	5.1
농업/총 수출	60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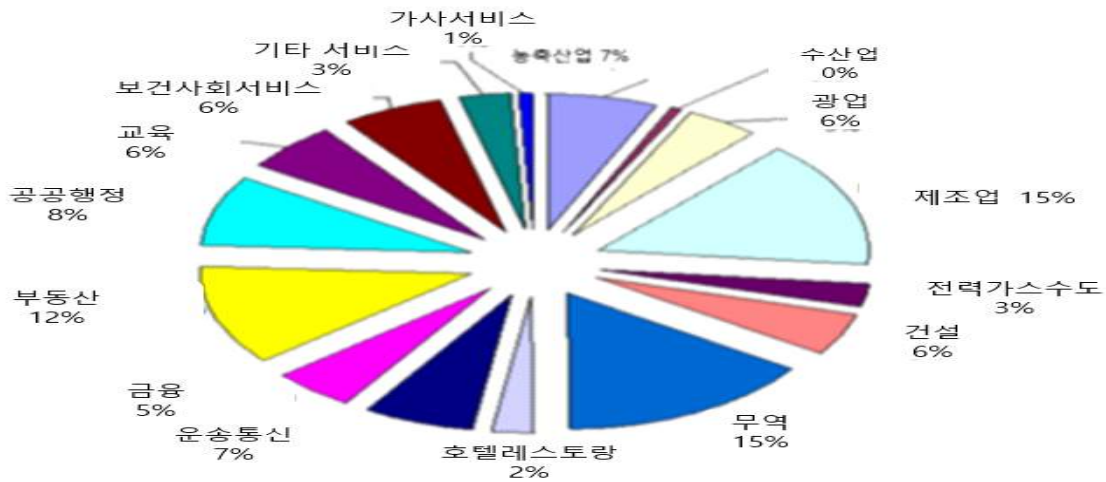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atabase, 2019.07; UN, 2018.

24) <https://www.ambito.com/politica/se-profundiza-la-concentracion-la-tierra-la-argentina- apenas-1-acapara-33-del-territorio-n3969517>

25)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1965년의 12.9%였으며, 최저치는 1999년의 4.46%이다.

2019년 3/4분기 GDP에서 차지하는 농축산업 비중도 7%로 제조업 15%와 무역 15%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은 최근 대두, 옥수수 및 밀을 투입재로 해서 자본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0년 5.1%, 2007년에 농업부문은 GDP의 5.61%를 차지하였지만,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림 6〉 아르헨티나의 산업 부문별 GDP 비중: 2019년 3/4분기



출처: Indec.

아르헨티나 농촌 인력 구조를 성별, 노동 신분, 교육 수준과 농업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이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 노동인력이 52.4%를 차지하여 여성인력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노동 신분을 보면 임금 노동자가 41.5%이며 자유노동자가 46.3%이다. 자유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고용직이 아니라 신분에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교육수준으로는 초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한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초등학교를 저학년에서 중퇴한 근로자가 35.7%를 차지하여 이 두 부류가 88.4%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개발과 농업기술 취득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이상 졸업한 농촌 인력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부문 구조별로 보면 농축산업 부문에 남성 근로자의 다수인 77%를 차지하고, 여성 인력은 50.4%가 종사하고 있다. 이어서 서비스 및 무역 부문이 15.3%를, 가공업 부문이 4.4%, 공공행정 부문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 사회에 있어 교육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보다 더 부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아르헨티나 농촌 지역 노동력 특성: 2003년(%)

항목	구분	비율	
성별	남성	52.4	
	여성	47.6	
근로형태	임금노동자	41.5	
	자유노동자	46.3	
	고용인	8.4	
	무보수 노동자(가족)	3.7	
교육수준	초등학교 저학년 중퇴	35.7	
	초등학교 중퇴	52.7	
	중고등과정	7.6	
	대학 과정	3.9	
농산업 부문별 취업		남성(100)	여성(100)
	농산업	4.2	5.8
	서비스 및 무역	9.8	36.0
	농축산업	77.1	50.4
	공공행정	3.4	6.3
	기타	5.6	1.5

자료: EHR. 2003.

2002년 국가농축산업센서스에 따르면, 약 123만 명이 농장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멘도사, 미시오네스 및 산타 페 등 5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²⁶⁾

2016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37,196명으로 전체 노동인구 1,747만 명의 2%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 5%에 크게 미달하여 농산업부문의 고용창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농촌인구는 2018년 기준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8.1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도시와 농촌의 거주 인구 분포를 비교해 보면, 도시인구(2,000명 이상 거주하는 장소) 비율은 89.31%이며, 남성이 48.2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촌마을(2,000명 미만)은 3.40%이며, 이 중 남성의 비율은 50.81%이다. 7.28%는 농촌 저택(vivienda en campo abierto)에 거주한다.²⁷⁾

26) INDEC.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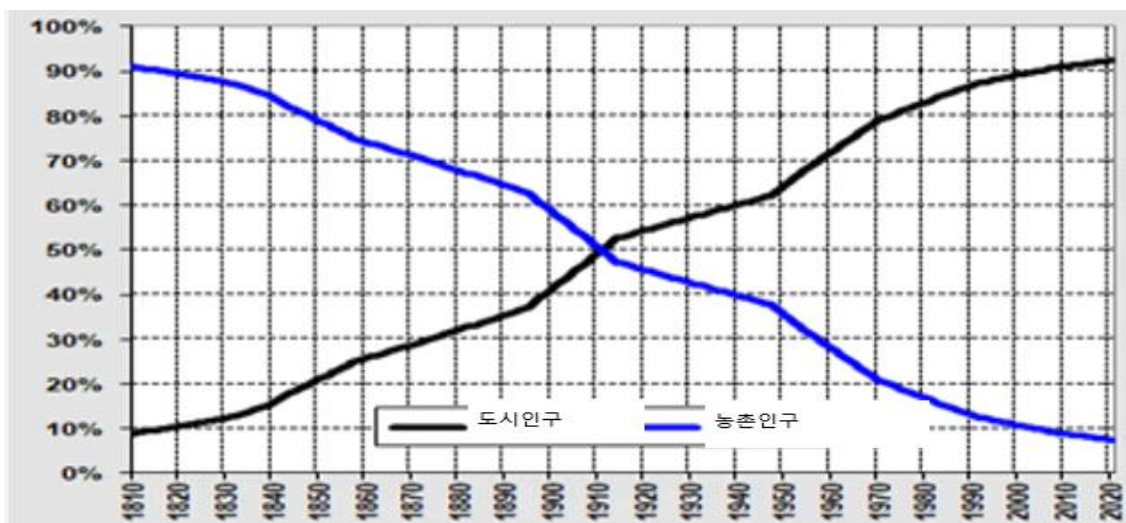
27) Censo 2010.

도·농간의 불균형 발전은 1910년을 변곡점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반면에 농촌 인구는 급감하는데 기인한다. 이는 유럽이민의 대규모 유입과 더불어 농촌 거주 매력의 감소하는 한편, 빠른 도시화의 진행에 기인한다. 1810년 아르헨티나에는 618,000명의 주민이 있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농촌에 정주하였다.

독립한지 100년이 지난 1910년에는 유럽 이민의 대규모 도래와 더불어 인구의 50%가 건설되는 도시에 정주하였다. 도시와 농촌 간 인구가 균형점을 이루었던 시점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세계 6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스페인인과 이태리 및 기타 유럽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공업화가 한창인 유럽의 농산물 수요 급증에 따라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팜파스 대평원이 개발되고,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철도와 수출항의 건설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그림 7〉 도시와 농촌 간 인구 비율



자료: El Ateneo. 2010. *Dos Siglos de Economía Argentina 1810-2010*, Cap. Demografía.

2020년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7.5%인 약 340만 명에 그친다. 2020년 현재 전체 인구의 92.5%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 인구의 급감과 달리 농업의 발전은 눈부시다. 1890년 당시 농산물 생산 100만 톤에서 오늘날 1억 4,5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화되었다. 그러나 농업은 다국적기업과 소수 영농 기업에 의해 현대화되고 있을 뿐 농촌사회 발전을 통한 농민 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소 GDP의 30%는 투자가 되어야 농촌이 발전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귀농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표 4> 아르헨티나 총인구수와 도시와 농촌 인구 비중

년도	인구 수	도시 인구 수 %	농촌 인구 수 %
2000	36.783.859	32.823.563 0,0%	3.960.296 10,8%
2005	38.728.787	34.923.675 90,2%	3.805.112 9,8%
2010	40.788.453	37.128.447 91,0%	3.660.006 9,0%
2015	43.131.966	39.600.082 91,8%	3.531.884 8,2%
2018	44.494.502	41.046.939 92,3%	3.447.563 7,7%
2019	44.938.712	41.497.449 92,3%	3.441.263 7,7%
2020	45.376.763	41.961.907 92,5%	3.414.856 7,5%

자료: Ibid.

농업 부문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면, 농촌 여성들은 농업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촌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히 크다. 차코, 멘도사, 산타페 및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의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여성 노동력은 48%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²⁸⁾

그러나 여성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남성의 소득보다 훨씬 낮다. 대다수 여성은 가사 일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은 생산과 유통 등 직접적인 농업 관련 일 뿐만 아니라 가사 및 보육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종종 닭, 염소, 양 및 돼지와 같은 가축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농촌 여성의 권리를 위한 기관으로는 아르헨티나 농촌여성연방협회(AMRAF)가 있다. 2020년 농촌 여성의 수는 1,722,107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농촌 인구의 50 % 수준이다. FAO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불공정한 농업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⁹⁾

고용의 중요성으로서의 농업부문을 들여다보면, 2020년 아르헨티나는 이어지는 경제위기와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특히 농식품업에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며, 이는 포스트 팬데믹에서도 주요 이슈가 된다.³⁰⁾

FADA(아르헨티나 농목개발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농식품업은 민간 부문에서 10명 중 2명의 고용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식품업 부문 노동시장의 1/5을 책임지고 있다. 즉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유통 및 가공업에 이르는 과정에 국내 고용 효과는 지대하다.

28) <https://infoagro.com.ar/la-mujer-rural-y-su-rol-en-la-agricultura/>

29) <https://www.onu.org.ar/las-mujeres-son-responsables-de-la-mitad-de-la-produccion-de-alimentos-en-el-mundo/>

30) El Ágora Por El Ágora, FADA(아르헨티나 농목개발재단) 통계 인용, 2020년 10월 5일.

〈그림 8〉 고용 창출 효과가 큰 5대 농식품업



출처: FADA. 2020.8. Monitor de Exportaciones Agroindustriales.

고용 효과가 큰 5대 농식품업 비중을 보면, 과일, 야채, 화훼 및 콩과류 가공업이 12%, 쇠고기 가공분야가 11%, 대두 가공부문 11%, 밀 가공 10%, 옥수수 가공 7%이다. 이 5대 부문이 전체 농식품업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업에서 고용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연계 과정별로 보면, 농산물 1차 원료생산 부문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유통 26%, 가공이 21%, 운송 및 물류가 8%, 연계 서비스가 4% 그리고 자본재 및 투입재가 3%를 차지한다. 향후 농업부문의 전망연쇄효과 증대와 더불어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후방연쇄효과를 보다 더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현재 370만 명이 농식품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앞으로도 곡물, 육류, 과일, 낙농 및 기타 농식품의 생산, 수출, 외화 획득에 있어 양적 유지 내지 증대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인 고용 창출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자원 조달,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수출정책의 일관성 등이 과제가 된다.

농촌과 농식품업이 국가 고용의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과 가공업을 연계하는 가치 사슬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통, 운송, 서비스 및 inputs가 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식품업 고용을 각 가치사슬별로 보면, 곡물, 사료 및 유지가 32%, 설탕, 과일 및 포도주가 32%, 육류 가공 분야가 24%, 자원 서비스 부문이 11% 기타 기계류 등 자본재가 1%로 구분된다.

<그림 9> 농식품업 부문별 고용 실태



출처: FADA, 2020.8.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투입재의 높은 수요로 인해 원료 생산 부문에서 40%라는 가장 큰 고용을 차지한다. 대두는 종사자의 47%가 원료 생산 부문에 투입되고 있으며 밀은 가공 부문에서 37%가 종사한다. 쇠고기 부문은 농식품업 고용의 11%를 차지하면서 1차 산업을 리드하고 있으며, 고용의 절반이 원료 부문에 종사한다.

농가공 부문은 농업 부문 고용의 15%를 차지한다. 포도주 산업은 농가공 분야 인력의 5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제당산업은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과일 및 야채류 부문의 고용 비중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료 생산 부문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특히 배, 사과, 레몬, 감자, 만디오카 및 고구마 등이 고용을 창출하는 작물이다.

낙농업은 5%의 고용을 나타내는 데 주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크림, 둘세 데 레체(dulce de leche) 등에 종사한다. 치즈 가공업이 낙농업 고용의 36%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이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속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농업은 과거 불평등으로 점철되는 역사와 근대 공업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인식이 어우러지면서도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업이 수출에서, GDP에서, 고용에서, 식량 공급 및 생태계 보전이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Antonio, Rinaldo Colom. 2008. “Sobre Política Agraria Argentina en el Período 1933-2007,” *Revista de Economía y Estadística*, Cuarta Época. Vol. 46, No. 1. pp. 22-23.

Censo Nacional Agropecuario 2018, 2019.

Chang-Rodríguez, Eugenio. 2000, *Latinoamérica: su civilización y su cultura*, 3ed, pp. 131-132.

El Ateneo. 2010. *Dos Siglos de Economía Argentina 1810-2010*, Cap. Demografía.

El Pueblo en Línea. 14/06/2018.

FADA. 2020.10.5. El Ágora Por El Ágora.

FADA. 2020.8. Monitor de exportaciones Agroindustriales.

Giani, Juan José (ed.). *Peronismo: Sus desafíos 2020. Macrisis y pandemia*. Paso de los Libres.

<https://www.ambito.com/politica/se-profundiza-la-concentracion-la-tierra-la-argentina- apenas-1-acapara-33-del-territorio-n3969517>

<https://www.infoagro.com.ar/la-mujer-rural-y-su-rol-en-la-agricultura/>

<https://www.lacapital.com.ar/agroclave/la-concentracion-la-produccion-agropecuaria-s e-profundiza-el-pais-n2551023.html>

<https://www.onu.org.ar/las-mujeres-son-responsables-de-la-mitad-de-la-produccion-d e-alimentos-en-el-mundo/>

<https://www.slideshare.net/JavierThellaecheOrti/tenencia-de-tierra-en-argentina>

https://www.tn.com.ar/sociedad/ley-de-tierras-quien-puede-comprar-cuanto-y-donde_ 699512/